



설을 3일 앞둔 23일 새벽 시민들이 남광주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을 보고 있다.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명절 당일 영업과 설 선물 세트 파격세일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명절 막바지 마케팅'이 한창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설 연휴 앞서서 설 수 없다”

### 매출 최악... 유통·외식업계 무휴 비상 근무

설 대목을 맞은 지역의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비상이다. 휴무 감축, 영업시간 연장, 파격 세일 등 매출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설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 주요 백화점들 설 하루만 쉬고 마트·패밀리 레스토랑 '논스톱'

22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설 당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을 쉬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날(26일)만 매장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는 영업시간을 30분 늘려 밤 8시 30분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분 연장 영업은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또 25일까지는 백화점 개점 시각(오전 10시30분)에 맞춰 문을 열었던 상품권데스크(1층)과 식품관(지하 층) 영업을 오전 10시로 30분 앞 당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설날 하루만 쉰다. 광주점이 연휴 기간 동안 하루만 쉬는 것은 지난 1998년 개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해까지는 명절 연휴기간 중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2일간 휴점을 해왔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올 설에는 연휴 기간 중 설날인 26일만 쉬기로 했다. 지역의 대형마트중에서는 설날조차 쉬지 않는 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설 선물 세트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는 등 최악의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 상무점 등은 26일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하며, 설 선물 세트 할인판매하는 '설날 세트 예누리 대처분전'도 함께 실시한다.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 9대 품목을 2개 이상 구입할 경우 최대

20~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도 26일에도 정상영업을 하며, 광주하남점과 계림점은 명절 당일엔 쉬는 대신 23~24일 이틀간 영업시간을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상무점 등은 설날 하루만 문을 닫으며, 오는 28일까지 설날 선물 세트 40개 품목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설날 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패밀리 레스토랑 빙스(상무점, 총장로점, 광천점)는 설을 포함한 연휴기간(25~27일) 내내 문을 열기로 하는 등 판매부진 극복을 위한 무휴 영업은 지역의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지역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휴무 포기하고 연장영업에 나선 이유는 설 대목이지만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심리가 IMF 당시보다 더 위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설 대목임에도 실적이 저조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휴무를 줄이는 등 연장营业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성묘길 주유소만 잘 들러도 '경품'

### SK주유소·GS칼텍스 등 상품권 주고 무료점검 서비스

설을 맞아 정유업체들이 경품 행사를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유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름 값을 절약할 수 있고 정유사들이 주는 경품이나 오일과 워셔액 보충 등 무료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SK에너지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매일 추첨을 통해 고객 300명을 뽑아 주유상품권을 선물하는 '2009 기축년 고향가는 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포털 '엔크린닷컴(www.enklean.com)'의 '고향가는 길' 이벤트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받은 경품번호 번호로 응모하면 된다. S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뽑힌 300명에게 주유상품권(3천원, 5천원)이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팟터치(2명)와 미키 MP3 플레이어(10명)를 선물하는 행사도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새해 소원을 빌면 추첨을 통해 캐쉬백 포인트 등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SK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 중 매일 2천명을 추첨,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무비플러스' 행사도 열고 있다. GS칼텍스는 주유소를 들른 고객 중 2만원 이상 주유한 고객들 중 선정, 주말 아침 시네마 브런치, 가족 여행을 위한 차량 대여 혜택을 주고 있다.

에스오일은 본격적인 설 연휴 기간(24~28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및 충전소 48개소에서 '에스오일 설 귀성고객 사은행사'를 시행중이다. 에스오일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주유 또는 충전 고객들을 위해 지퍼백·위생백·비닐장갑으로 구성된 홈세트 7만개와 귀성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입체퍼즐세트 3만개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현대오일뱅크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서 자사 보너스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고급 하이패스 단말기 500대를 설날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삼성화재 신용 등급 'A+' 국내 최고...7년연속 기록 美 에이엠베스트사 평가

삼성화재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에이엠베스트(A.M.Best)사로부터 국내 보험사 가운데 최고 신용등급인 'A+(Superior)'를 지난해 받아 2002년부터 7년 연속 획득 기록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A.M.Best사는 삼성화재의 자본력과 수익증시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무건전성, 수익성, 안정성, 보험금지급능력 면에서 탁월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삼성화재가 이번에 획득한 'A+'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A++' 등급과 함께 최상위(Superior) 등급에 속한다. 특히 세계 유수 보험사인 미국 올스테이트(A+, aa), 스위스 리(A+, aa), 알리안츠그룹(A+, aa) 등과 같은 등급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해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S&P(Standard&Poor's)사로부터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최고 신용등급인 'A+, Stable'을 6년 연속 획득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회계연도(2007년) 주요 경영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29%, 당기순이익 4천765억원과 함께 재무건전성 척도인 지급여력 비율은 382.5%를 기록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 작년 실질무역 손실 100조 넘었다

### 국제유가 급등 교역조건 급속 악화 전년대비 35조 늘어난 114조6천억

교역조건 악화로 지난해 실질무역 손실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은 지난해 114조 6천66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조 2천억 원이 급증했다. 실질무역 손익이란 2000년도 기준 수출입 가격변화에 따른 구매력 증감을 나타낸 것으로 무역에서 직접적으로 114조 원의 손실을 본 것

은 아니지만, 같은 수출물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818조 956억 원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생활활동이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더라도 그만큼 소득 증가 효과를 줄여줄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5% '플러스' 성장을 했지

만, 무역 손익을 감안한 국내총소득(GDI)은 -2.1%로 뒷걸음질쳤다. 실질 무역손실은 2001년 7조 4천억 원에서 2002년 9조 6천억 원, 2003년 17조 5천억 원, 2004년 24조 5천억 원, 2005년 46조 4천억 원, 2006년 67조 8천억 원, 2007년 78조 4천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작년 3분기 수입단가지수는 148.4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8.6% 급등했지만, 수출단가지수는 10.8% 상승한 데 그쳤다. /연합뉴스

# JP모건 “올 한국 성장률 -2.5%로 하향”

JP모건은 23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재조정정이 이제 시작 단계인 데다 서비스업은 이제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기 시

작할 것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대비 -5.6%, 전년동기 대비 -3.4% 하락한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수요부진 지표들이 너무 가파르게 악화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쇼크는 사업관련 설비투자 와 재조정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들은 작년 4분기에 재고를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없애버리면서, 재고조정을 심각한 수준으로 했다고 임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경기 급감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중소 공동상표 개발 소요비용 70%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제고와 공동관료 개척을 위한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공동상표 지원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이용하려 할 때 상표개발 소요비용 70%까지 지원해준다. 선정된 상표 추진체는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상표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동상표 홍보지원 제도'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대표자가 공동상표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이용할 때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공고일 현재 정부 홍보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된다.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orea's Best' (Korea's Best) featuring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Text includes: '무안 - 장사(장가계) 직방!', '무안 - 상해(방곡) 직방!!!', '무안 - 장사(장가계) 직방!', '무안 - 상해(방곡) 직방!!!'. Contact information: 광주 MBC 문화방송, 광주/전남·북 유망여행사, 전화 062-226-6070.